

李陸史 詩의 意識과 그 意味

金 昞 澤*

目 次

- I. 序 論
- II. 本 論
 - 1. 抵抗意識과 民族의 現實
 - 2. 故鄉意識과 떠도는 者의 삶
 - 3. 超人意識과 未來志向
- III. 結 論

I. 序 論

이육사 시는 문학을 사회(시대)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할 때 떠오르는 적절한 예들 중에서 맨 먼저 꼽힐 정도로 문학과 시대에 대한 여러가지 물음과 답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이육사 시가, 순수시의 아름다운 서정을 분석하고 해명하는 작업의 대상이 아니라 순수시가 아닌, 사회의 암흑성을 과감히 고발하고 사회의 모순에 저항하는 시정신의 구조를 밝히는 작업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한국의 근대시인들 중에서는 이육사 말고도 한용운, 윤동주, 이상화 등의 시가 그러한 차원에 서 논의되어 왔거니와 그러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가 보여주는 시정신의 구조는 되풀이해서 해명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의 목소리가 아무리 고고하고 그 울림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훌륭한 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것은 시적 장치에 의해 통제되고 정교하게 다듬어질 때에 훌륭한 시의 바탕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육사의 시들에서는 그러한 점이 쉽게 발견된다. 시인의 목소리와 시적 장치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육사 시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이육사가 그의 전생애를 독립운동에 바쳤다는 사실을 거의 참조하지 않고서도 얼마든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지 가능하다. 이 점은 이육사 시를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육사 시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세 가지의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것의 첫째는 이육사 시를 민족주의 저항시로 파악하여 접근한 방향¹⁾이고 그것의 둘째는 이육사가 살았던 시대상황과 個人史를 시의 해석에 밀접하게 관련시켜 접근한 방향²⁾이며 그것의 셋째는 이육사 시의 의식세계를 밝히는 데에 초점을 두어 접근한 방향³⁾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육사 시에 나타난 의식과 그 의미를 고찰하는 데에 있다. 본고에서의 연구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연구방향 중에서 셋째의 방향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역사주의 방법과 분석주의 방법도 함께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육사의 약 40편에 달하는 시들의 의식과 그 의미는, 대체로 세 개의 경향으로 구분할 때 그 중 어느 한 경향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 경향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도 있다. 본고에서는 세 개의 경향에 포함될 수 있는 시들만 취하여 그 경향을 저항의식과 민족의 현실, 고향의식과 떠도는 자의 삶, 초인의식과 미래지향으로 정하였다.

이육사 시에 나타나는 의식과 그 의미를 세 가지 경향으로 구분한 것은 어디까지나 논리전개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필자가 그렇게 구분하는 데에는, 이육사 시의 정신사적 면모도 아울러 파악한다는 부수적인 목적이 고려되었음을 밝혀 둔다.

본고를 위해 사용한 텍스트는 金淳東 編著 「李陸史全集」(새문사, 1986)인데 시 속의 어휘가 분명한 뜻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심원섭 편주 「원본 李陸史 전집」(집문당, 1986)을 참조하였다.

Ⅱ. 本 論

1. 抵抗意識과 民族의 現實

시인과 그 시인이 살았던 시대의 관계는 갈등의 관계일 수도 있고 화해의 관계일 수도 있다. 화해의 관계는 시인이 그 시대를 수용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으로 유지되지만 갈등의 관계는 대

- 1) 金榮茂, "李陸史論", 「創作과 批評」, 1975, 여름호.
 金容稷, "召命感 속의 詩와 行動精神", 「文學思想」, 1976. 1.
 金鐘哲, "陸史의 詩, 그 意味와 限界", 「文學思想」, 1976. 1.
 金時泰, "民族의 비전", 「現代詩와 傳統」, 成文閣, 1981.
- 2) 鄭漢模, "육사 시의 특징과 詩史的 的의", 「나라사랑」16, 1974. 9.
 金興奎, "陸史의 詩와 世界認識", 「文學과 歷史的 人間」, 創作과 批評社, 1980.
 金宗吉, "陸史의 詩", 「나라사랑」제16집.
 金淳東, "陸史 李源祿論", 「韓國現代詩人論」, 民音社, 1977.
- 3) 吳世榮, "李陸史의 「絶頂」", 「韓國現代詩作品論」, 문장사, 1981.
 金鎮國, "李陸史의 「黃昏」", 「韓國現代詩作品論」, 문장사, 1981.

립의 관계로 진전될 수 있으며 시대의 힘이 우세하게 작용하여 시인을 억누를 때에는 시인으로 하여금 저항의 자세를 지니게 하기도 한다. 이육사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 저항의 자세를 지녔던, 그리고 그 자세를 행동으로 옮겼던 시인이다. 그를 혁명과, 독립투사로 부르는 것은 이러한 점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黃昏」·「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絶頂」·「蝙蝠」 등에 나타난 이육사의 저항의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에서 형성되고 전개된 것인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점은 이육사의 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때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맘으로 黃昏을 마저드리노니
바다의 흰갈매기들 갖치도
人間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나

黃昏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미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보련다.
그리고 네 품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저—十二星座의 반사작이는 별들에게도
鐘소리 저문 森林속 그윽한 修女들에게도
세멘트 장판우 그만한 囚人들에게도
의지할 가지업는 그들의 心臟이 얼마나 떨고 잇술가

‘고비’沙漠을 걸어가는 駱駝탄 行商隊에게나
‘아푸리카’ 綠陰속 활쏘는 ‘인데안’에게라도
黃昏아 네부드러운 품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地球의 半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맞겨다오

내 五月의 골방이 아늑도 하오니
黃昏아 來日도 또 저-푸른 커튼을 갖게 하겠지
暗暗히 살어지긴 시내물 소리갓해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도라올 줄 모르나부다

— 「黃昏」 全文

「黃昏」은 「春愁三題」와 함께 이육사의 본격적인 詩作活動으로 볼 때는 출발선상에 놓이는 작품이다. 여기에는, 「달」이란 작품이 1930년 1월 3일자 朝鮮日報에 발표된 사실이 밝혀지기는 했으나, 내용과 기교의 미숙함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데뷔작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사정이 전제된다.

「黃昏」의 표면에서는 저항의식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면에서도 거의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만 애써 찾는다면 ‘골방’의 이미지 정도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黃昏」을 감싸고 있는 내용은 저

항의식이 아니라 타인(대상)에 대한 크나큰 사랑인 것으로 보인다. 「黃昏」의 화자는 황혼이 소멸되어가면서도 모든 것을 안아들이듯이 '반스작이는 별', '修女', '囚人', '行商隊', '인데안' 등을 품에 안아서 '타는 입술'로 입맞춤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화자에 의해 표명된 크나큰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또는 무시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내 골방의 커-텐'을 걷는 행위가 있어야 나타나는 것이다. 즉, 크나큰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내 골방의 커-텐'을 걷는 행위 이후에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점은 그 행위 이전의 상황을 주목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黃昏」을 '저항의식과 민족의 현실'에서 논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작품에 잠복해 있는 '그 행위 이전의 상황'이 저항의식을 가지고 민족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려는 의지와 결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꼭 한 개의 별을
十二星座 그 술한 별을 어찌나 노래하겠니

꼭 한 개의 별! 아침 날 때 보고 저녁 들 때도 보는 별
우리들과 아주 親하고 그 중 빛나는 별을 노래하자
이름다운 未來를 꾸며 볼 東方의 큰 별을 가지자

한 개의 별을 가지는 건 한 개의 地球를 갖는 것
아름진 설움밖에 잃을 것도 없는 낡은 이 땅에서
한 개의 새로운 地球를 차지할 오는 날의 기쁜 노래를
목안에 핏대를 울려가며 마음껏 불러 보자

영리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神이란 항상 거룩합시니
새 별을 찾아가는 移民들의 그 틈에 안 끼여 갈 테니
새로운 地球엔 단罪 없는 노래를 眞珠처럼 흘리자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 다만 한 개의 별일망정
한 개의 또 한 개의 十二星座 모든 별을 노래하자

-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1, 2, 3, 7, 8연

「黃昏」에 나타나 있는 그 상황은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에서도 거의 그대로 일치한다.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黃昏」의 '골방'은 辛酸과 부자유를 상징하고 있는 데에 비해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의 '한 개의 별'은 염원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염원은 청유의 방법으로 표명되고 있다. 8연으로 구성된 전편 중에서 제1연을 제외한 모든 연이 '~자'의 청유형 종결어미로 끝나고 있음은 화자를 통해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것임은 마지막 연의 '다만 한 개의 별일망정 한 개 또 한 개의 十二星座 모든 별을 노래하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운 季節의 셋죽에 갈겨
마춤내 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高原
서리빨 칼날진 그우에서다

어데다 무릎을 꾸러야 하나?
한발 재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볼밖에
겨울은 강철로된 무지개가보다

- 「絶頂」 全文

「絶頂」은 시인과 그 시인이 살아가는 시대와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혁명가·독립투사로서의 이육사는 이 작품에서 일제의 가혹한 탄압이라는 체험을 치열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박두진은 이 작품을 분석하기에 앞서 "시인의 개인적 체험과 민족의 체험이, 詩의 普遍的 眞實과 그 民族詩로서의 現象的 眞實이 완전히 具合 實證돼 있으며, 作品的인 완벽 한 성과로서 詩의 本質, 詩 自體의 불멸의 根源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⁴⁾고 단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세한 부분에 대한 반론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큰 테두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1연의 '매운 季節의 춧죽'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일제의 탄압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춤내 北方으로 휩쓸려' 온 사람은 시인 자신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마춤내 北方으로 휩쓸려' 온 사람이 시인 자신에 국한되지 않고 민족 전체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2연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高原'이라든지 '서리빨 칼날진 그우'는 모두 절망적인 상황의 정도를 가늠케 하는 표현들이다. 3연에서 화자를 통해 시인이 인식하는 그 상황의 절박함은 4연에 와서 시인이 도달한, 높은 정신세계의 영역에 수렴된다. 그 정신세계는 다름아닌 여유있는 관조의 세계이다. 관조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발견될 수 있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와 같은 역설적 표현도 가능하다.

光明을 背反한 아득한 洞窟에서
다 썩은 들보라 무너진 城堦 위 너 홀로 돌아다니는
가연은 박쥐여! 어둠의 王者여!
취는 너를 버리고 부자집 庫간으로 도망했고
大鵬도 北海로 날아간 지 이미 오래거늘
검은 世紀에 喪裝이 갈갈이 찢어질 긴 동안
비둘기 같은 사랑을 한 번도 속삭여 보지도 못한

4) 朴斗鎭, 「韓國現代詩論」, 일조각, 1982. p. 107.

5) 이러한 반론의 예는 다음과 같다.

金榮茂, "李陸史論", 「創作과 批評」, 1975. 여름호

金興奎, "陸史의 詩와 世界認識", 「文學과 歷史의 人間」, 創作과 批評社, 1980.

가없는 박쥐여! 孤獨한 幽靈이여!

앵무와 함께 종알대어 보지도 못하고
 딱다구리처럼 古木을 쪼아 울리도 못 하거니
 만호보다 노란 눈같은 遺傳을 원망한들 무엇하랴
 서러운 阮交일사 못 외일 苦悶의 이빨을 갈며
 種族과 晷(時)를 잃어도 갈 곳조차 없는
 가없는 박쥐여! 永遠한 '보헤미안'의 녀이여!

제 情熱에 못 이겨 타서 죽는 不死鳥는 아닐망정
 空山 잠긴 달에 울어 새는 杜鵑새 흘리는 피는
 그래도 사람의 心琴을 흔들어 눈물을 짜내지 않는가!
 날카로운 발톱이 암사슴의 연한 肝을 노려도 봤을
 너의 머니 祖先의 榮華롭던 한시절 歷史도
 이제는 '아이누'의 家系와도 같이 서러워라
 가없는 박쥐여! 멸망하는 겨레여!
 運命의 祭壇에 가늘게 타는 쯤불마저 꺼졌거든
 그 많은 새짐승에 빌붙일 愛嬌라도 가졌단 말가?
 相琴鳥는 고운 뺨을 채롱에 팔지도 못 하는 너는
 한 토막 꿈조차 못 꾸고 다시 洞窟로 돌아가거니
 가없는 박쥐여! 거은 化石의 妖情이여!

- 「蝙蝠」全文

「蝙蝠」역시 민족의 현실을 소재로 삼고 있는 작품이다. 「絶頂」이 시인을 중심으로 민족의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면 「蝙蝠」은 민족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수사는 상징이다. 박쥐를 등장시켜 그것의 생태를 밝힘으로써 우리 겨레의 참담한 삶을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박쥐는 그대로의 박쥐가 아니라 '가없는' 박쥐이다. '어둠의 王者'이기는 하지만 박쥐는 '검은 世紀에 喪裝이 갈갈이 찢어질 긴 동안/비둘기 같은 사랑을 한 번도 속삭여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앵무와 함께 종알대어 보지도 못하고/딱다구리처럼 古木을 쪼아 울리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박쥐의 생태가 곧 우리 겨레의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떠한 시의 독법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실제로 이 작품에는 그 박쥐와 우리 겨레가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 상태의 진술이 여러 개 발견된다. 1연에서의 '가없는 박쥐여! 孤獨한 幽靈이여!', 2연에서의 '種族과 晷(時)를 잃어도 갈 곳조차 없는/가없는 박쥐여! 永遠한 '보헤미안'의 녀이여!', 3연에서의 '가없는 박쥐여! 滅亡하는 겨레여!' 등은 그것의 적절한 예들이다. 한 마디로 해서 이 작품은 우리 겨레의 참담한 삶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겨레의 운명을 저항적 시각에서 인식하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이육사 시에 나타나는 저항의식은, 「黃昏」에서는 '골방의 커-텐'을 걷는 행위 이전의 상황에서,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에서는 한 개의 별을 염원의 대상으로

로 삼는 절실함에서, 「絶頂」에서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에 나타나는 역설에서, 「蝙蝠」에서는 박쥐의 생태와 동일하게 진술되는 참담한 겨울의 삶에서 각각 형성되고 전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 다르게 표현된 형성·전개의 근거가 한마디로 해서 민족의 현실이란 말에 포괄될 수 있는 것들임은 물론이다.

2. 故郷意識과 떠도는 者의 삶

연보⁶⁾에 의하면 이육사의 독립운동이 구체화한 것은 國民黨正義部·大韓獨立黨軍政署·義熱團 등의 독립운동 단체에 입단하여 활동하면서부터이다. 그는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北京을 수차례 드나들었으며 張鎭弘 의사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을 시작으로 한 각종 국내외의 독립운동 관련 사건으로 17회 이상 피검, 투옥되었다. 이육사의 작품활동이 그의 나이 27세 때인 1930년 1월 3일 朝鮮日報에 「말」이란 작품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면 1944년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활동기간은 14년이 된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그의 생애를 염두에 둔다면 고향의식에 바탕을 둔, 떠도는 자의 삶을 드러낸 작품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여기에서는 「路程記」·「草家」·「小公園」·「年譜」·「青葡萄」·「獨白」·「子夜曲」 등의 작품이 어떠한 고향의식에 바탕을 둔, 떠도는 자의 삶을 드러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목숨이란 마치 껌이 된 배조각
여기저기 흐터져 마을 이 한 구죽죽한 漁村보다 어설피고
삶의 피끝만 오래묵은 布帆처럼 달아매었다.

남들은 깃벳다는 짧은 날이엿진만
밤마다 내꿈은 西海를 密航하는 '정크'와 갖해
소금에 짚고 湖水에 부뜨러 울넛다.

항상 흐릿한밤 暗礁를 버서나면 颶風과 싸워가고
傳說에 읽어본 珊瑚島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南十字星이 비쳐주도 안었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地平線을 한숨에 기어오르면
시궁치는 熱帶植物처럼 발목을 오여쌌다.

새벽 밀물에 밀여온 거의인양
다 식어빠진 소리 깃질에 나는 부터왔다
머니 항구의 路程에 훌너간 생활을 드러다보며

- 「路程記」全文

「路程記」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이육사의, 고난의 삶이다. 따라서 이 시에는 전

6) 이 연보는 심원섭 편주 「원본 李陸史전집」(집문당, 1986)에 수록된 '작가연보'를 가리킨다.

체적으로 암울한 분위기가 내재되어 있으며 어디에도 평화롭게 정착하지 못하는 시인의 처지가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는 이육사의 고향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하고 '떠도는 자의 삶'의 실상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그 고향의식은 조국의식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

1연의 '목숨이란 마치 꺾어진 배조각'은 이육사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표현으로서 냉소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다. 그런데 그 냉소적인 분위기는 2연에 와서 불안감으로 바뀌고('西海를 密航하는 '썰크'와 갖해') 3연에서는 고난의 단계와 이유를 제시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4·5 연에서는 1·2·3연에서 드러난 시인의 처지가 확인된다. 시인은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므로 '그리운 地平線을 한숨에' 기어올라 보아도 거기에는 '시궁치'가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잡을 뿐이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론적인 확인은 '새벽 밑물에 밀려온 거의인양/다 삭아빠진 소리 깍질에 나는 부터왔다'에서 이루어진다. 그 확인은 곧 삶 자체의 路程에 대한 확인이기도 하다.

구겨진 하늘은 목은 얘기책을 편 듯
 돌담울이 古城같이 둘러싼 山기슭
 박쥐 나래 밑에 黃昏이 문혀오면
 草家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故鄉을 그린 墨畫 한 폭 종이 처.

피엄피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슬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네 줄에 비가 오면 豊年이 든다더니
 앞내강에는 씨레나무 밀려나리면
 늙은이는 늙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港口로 흘러 간 몇 달에
 서릿발 잊져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피로 가꾼 이삭에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놈이 北極을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벽에 서려 성애 끼는 한겨울 밤은
 洞里的 密告者인 江물조차 얼붙는다.

- 「草家」全文

「草家」에는 시인이 바라보는 고향(농촌)의 목가적인 풍경이 맨 먼저 제시되어 있다. '돌담울이 古城같이 둘러싼 山기슭'이며 '박쥐 나래 밑에 黃昏이 문혀'을 때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는 고향은 그야말로 한 폭의 墨畫이다. 고향에서는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간 가시내'들이 종달

새 노래에 반해 정신을 빼앗기다보니 빈바구니로 오기가 부끄러워 '술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고향이 반드시 그러한 고향만은 아니다. 3,4연에 이르러 시인은 그 고향의 피폐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일제치하의 암흑상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 고향의 젊은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港口'로 나가고 '피로 가꾼 이삭'은 참새때에 의해 사라져 간다. 젊은이들이 없는 마을에서는 늙은이들만이 남아서 서로 싸우고 있는 판국이다. 그래서 늙은이가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벽에 서려 성애 끼는 한겨울 밤'은 "액면 그대로 무기력한 사회, 삶의 터전을 잃은 공허한 세계"⁷⁾일 수밖에 없다.

「草家」에 나타난 고향의 목가적 풍경과 피폐한 실상은 시인이 고향 밖에서 바라본 것이다. 떠도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시인은 한 쪽의 그림과 같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폐한 실상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그 실상의 정도는 '벽에 서려 성애 끼는 한겨울 밤은 / 洞里的 密告者인 江물조차 얼붙는다'에서 비유적으로 드러난다.

한낮은 백발이

白孔雀 꼬리 위에 함복 퍼지고

그념에 비둘기 보리밭에 두고 온

사랑이 그림다고 근심스레 코고올며

해오라비 靑春을 물가에 흘려 보냈다고

쭈그리고 앉아 비를 부르건마는

흰 오리 떼만 분주히 미끼를 찾아

자무락질치는 소리 약간 들리고

언덕은 잔디밭 파라솔 돌리는 異國少女 들

海棠花 같은 뺨을 돌려 望鄉歌도 부른다.

- 「小公園」 全文

「小公園」에도 고향의식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草家」의 1,2연에서 보여준 수법도 그대로 사용된다.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의 고향의 피폐한 실상이 제시되지는 않는다. 시인은 그저 화자를 통해 허허로운 느낌만을 토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작품에는 소공원의 여러 동물들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이 단속적으로 배열되고 있는데 내용의 핵심은 '海棠花 같은 뺨을 돌려 望鄉歌라도 부른다'에서 나타는 것처럼 고향을 그리워 하는 마음이다.

너는 돌다리목에 쫓았다는

할머니 핀잔이 참이라고 하자

7) 金時泰, "民族의 비전", 「現代詩와 傳統」, 成文閣, 1981, p. 277.

나는 진정 江 언덕 그마월에
버려진 문바지였는지 몰라?

그러기에 열여덟 새봄은
버들피리 곡조에 부러보내고

첫 사랑이 흘러간 港口의 밤
눈물섞어 마신술 피보다 달드라

꿈명이 마다곤들 언제 말이나 했나?
바람에 부쳐 돌아온 고장도 비고

서리밭고 걸어간 새벽길우에
肝있만 새하얗게 단풍이들어

거미줄만 발목에 걸리다 해도
쇠사슬을 집어맨듯 무거워졌다

눈우에 걸어가면 자욱이 지리라고
때로는 실래이며 파람도 불지

— 「年譜」 全文

「年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연에서부터 4연까지의 전반부이고 다른 하나는 5연에서부터 마지막 연까지의 후반부이다. 전반부에는 주로 시인의, 소년기의 행로가 드러나 있는데 그것이 회상의 형식으로 진술되고 있어서 낭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기에 '열여덟 새봄은/버들피리 곡조에 부러보내고' 나 '첫사랑이 흘러 간 港口의 밤/눈물섞어 마신술 피보다 달드라'같은 표현은 '떠도는 자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나 굳은 신념이나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고난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한 신념이나 고난은 후반부에 나타나 있다. 후반부에는 조국의 참혹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고향을 등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고난과 역경이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치열하기까지 하다. 그 치열함의 정도는 마지막 연의 '눈 우에 걸어가면 자욱이 지리라고/때로는 실래이며 파람도 불지'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 작품에서 보여 주는, 정신적 고통이나 육체적 고통을 견디어내고 난 후에 도달한 정신의 치열함은 「絶頂」에서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다.

내 고장 七月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기슴을 열고
흰 돛단 배가 꿈계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靑袍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

내 그릇 맞아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을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 「靑葡萄」全文

「靑葡萄」에 나타난 고향의식은 이육사의 다른 어느 작품에서보다도 구체적이다. 그 구체성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七月을 배경으로 한 데에서 획득된 것이며 그로 인해 발현되는 음악성과 회화성은 신비롭도록 교묘히 융화된다.⁸⁾ 그런데 이 작품을 하나의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이 작품 자체가 지니고 있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어서 옳은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이 작품은 “이 詩人 자신이 현실적인 소망으로서라기보다는 어떤 象徵的이며 寓意的인 기다림의 對象을 제시하여 고달프고 無望한 민족에게, 또는 그 자신에게 情緒的이면서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그렇게 해서 삭막한 갈증을 충족시키게 하려 했고, 그러한 主題로써 성공을 거둔 작품”⁹⁾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청포도〉라는 한 사물을 통하여 陸史의 끝없는 향수와 아름다운 우정, 그리고 어떤 對象에 대한 끈질긴 기다림의 미래에의 염원을 정서적으로 美化”¹⁰⁾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만큼 이 작품은 여러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에 나타난 시인의 삶은 앞에서 살펴본 작품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자의 삶이며 동시에 떠도는 자의 삶이다.

靈母처럼 회고찬 얼굴
그냥 죽엄에 묻든줄 아나
내지금 달알에 서서 있네

돛대보다 늙다란 어깨
얇은 구름쪽 저의줄 가려
파도나 바람을 귀밀에 듣네

갈매인양 떠도는 심사
어데 하난들 끝간델 아리
오롯한 思念을 旗幅에 흘니네

8) 金榮茂, “李陸史論”, 「創作과 批評」, 1975, 여름호, p. 203.

9) 朴斗鎭, 앞의 책, p. 113.

10) 金澤東, 「韓國現代詩人研究」, 民音社, 1984, p. 210.

船窓마다 푸른막 치고
촛불 鄉愁에 지르르 타면
運河는 밤마다 무지개 지네

뺨귀 같은 날개나 퍼면
아주 흐린날 그림자 속에
떠서는 날잔는 사복이 됩세

닭소래나 들니면 갈라
안개 뽕얇게 나리는 새벽
그곳을 가만히 내려서 감세

- 「獨白」 全文

「獨白」에서는 고향의식에 바탕을 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그 인식은 시각적인 이미지에 의해 구현되고 있으며 '내지금 달알에 서서 있네'나 '과도나 바람을 귀 밑에 듣네'는 그 경우의 적절한 예이다.

여섯 연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1연에서 5연까지 각 연 마지막 행이 '~네'라는 종결어미로, 6연과 7연 마지막 행이 '~감세'라는 청유형 종결어미로 각각 끝나고 있어서 시인의 독백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 작품의 분위기는 어두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것은 5,6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5연의 '뺨귀같은 날개나 퍼면/아주 흐린날 그림자 속에/떠서는 날잔는 사복이 됩세'에서의 우울한 의지와 6연의 '닭소래나 들니면 갈라/안개 뽕얇게 나리는 새벽'에 '그 곳을 가만히 내려서' 가자는 불안한 의지가 그렇게 되도록 유도한다. 여기에서의 '그 곳'은 고향을 가리킨다. 이 작품은 결과적으로 주제를 고향의식과 결부시키고 있는 셈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의식의 주체인 시인이 떠도는 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만호 빛이래야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리라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
파이프엔 조용히 타오르는 꽃불도 향기론데
연기는 뚫대처럼 날려 항구에 들고
옛날의 들창마다 눈동자엔 짜운 소금이 저려
바람불고 눈보래 치잖으면 못살이라
매운 술올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숨막힐 마음속에 어대 강물이 흐르노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물에 드리라

수만호 빛이래야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리라

- 「子夜曲」 全文

「子夜曲」에는 시인이 직접 자신의 고향에서 바라보고 겪은 고향의 실상이 제시되어 있다. '수만호 빛이래야할' 내 고향인데도 이제는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른 세계, 즉 황폐한 세계로 변모해버린 것이다. '옛날의 들창마다 눈동자엔 짜운 소금이 저려'서 '바람 불고 눈보래 치잖으면 못살' 정도가 되고 '매운 술을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가 들린다. 이때 시인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시인으로 하여금 떠도는 자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일제치하에서의 온갖 고난과 역경들이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 '짜운 소금', '바람', '눈보래', '매운술' 등은 그것의 예들인데 우리는 그 예들에서 이육사 특유의 강인한 정신자세를 발견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육사 시에 나타나는 고향의식들은 미세한 부분에서 구별되는 것들이다. 조국의식에 기울어진 경우(「路程記」)가 있는가 하면 고향의 피폐한 실상을 드러내거나(「草家」·「子夜曲」) 망향의식으로 나타난 경우(「小公園」)도 있다. 또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고 도달한 높은 정신세계가 고향의식과 연결된 경우(「年譜」)를 만나기도 한다. 이와는 약간 다르게 자신(시인)의 처지가 부각되거나(「獨白」) 회망적인 미래를 염원하는 경우(「青葡萄」)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떠도는 자의 삶'은 이러한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고향의식의 모든 경우에 바탕을 둔 삶이다.

3. 超人意識과 未來志向

超人이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육사의 시에 초인의식이 나타나 있다는 말은 이육사 자신이 스스로 초인이라는 생각을 지녔다는 말과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그의 작품에 나타나 있는 초인의식은 「曠野」의 '白馬타고 오는 超人이 있어'에서 보듯이 '초인'을 기다리고 있는 의식이며 또한 이것은 우리 겨레를 위해 큰 힘을 발휘하거나 큰 힘의 원천이 되는 것에 대한 의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여기에서는 「喬木」·「曠野」·「꽃」에 나타나 있는 초인의식과 미래지향의 측면을 살펴 보기로 한다.

푸른 하늘에 다울드시
세월에 불타고 옷둑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날근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내이는
마음은 아예 누우침 안이리

검은 그림자 쌀쌀하면
마춤내 湖水속 깊이 겪우러져
참아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喬木」 全文

「喬木」에서 시인이 성취하고 있는 것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확고부동한 자기확인이다. 이것은 또한 “모순된 선택이나 그 모순의 승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행한 비극적 자기확인”¹¹⁾이기도 하다.

1연의 '푸른 하늘에 다올드시/세월에 불타고 웃둑 남아서서'는 지금까지 지켜온 독립운동가로서의 기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그 기개는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에서 처럼 역설적인 의지로 표명된다. 그리고 그 기개와 의지는 '남은 거미집 휘두르고/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내이는' 마음에도 아예 뉘우침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여기에서의 '끝없는 꿈길'은 푸른 하늘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자칫하면 감상적으로 변해버릴지도 모를 가능성을 담고 있으나 이 작품에서는 그것이 전면적으로 차단된다. 3연에는 '참아 바람도 흔들진 못'할 정도로 단단하게 무장하고 있는 시인의 내면세계가 나타나 있다.

결국 이 작품은 시대의 어려움을 자기 스스로의 어려움으로 감싸안고 그것을 헤쳐 나가려는 시인의 굳은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스라

모든 山脈들이
바다를 戀慕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곤을 狎하는 못하였으리라

끈임없는 光陰을
부지런한 季節이 피여선 지고
큰 江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들 뿌려라

다시 千古의 뒤에
白馬타고 오는 超人이 있어
이 曠野에서 목노아 부르게 하리라

- 「曠野」 全文

11) 金興奎. 앞의 글, 앞의 책, p. 103.

「曠野」는 조국독립과 해방에 대한 염원¹²⁾을 노래한다. 그 염원은 초인의식에 바탕을 둔 낙관적 미래 지향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점은 이 작품의 1연과 4연에서 잘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 독자의 전체적 시야에 포착되는 공간은 '광야'이다. 이 광야는 그냥 전개된 보통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겨레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이다. 실제로 1연은 이 근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에서 우리 겨레의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까마득한 날에/하늘이 처음 열리고/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스라'는 표현은 그러한 점을 나타내 주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1연의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스라'는 김종길에 의하면 "어디선가 닭우는 소리 들렸으리라"의 뜻이다.¹³⁾ 2연에서는 그 광야의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는데 신성불가침이 바로 그것이다. 광야는 신성불가침¹⁴⁾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산맥들이 '참아 이골을 犯하든 못하'는 것이다.

3연에서는 마침내 그 광야가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면면히 이어져온 민족사의 흐름을 '큰江水'에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4연에서 보듯이 그 광야에는 '눈'이 내린다. '눈'이 다른 계절이 아닌 겨울의 상징이라는 사실에 유의한다면 '지금 눈 내리고'는 식민지체제하의 각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¹⁵⁾ 그리고 눈내리는 겨울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봄을 기다린다는 뜻이며 봄이 겨울과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계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민족해방의 날을 상징하는 것이 된다.¹⁶⁾ 시인은, 지금의 조국이 식민지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千古의 뒤에', '白馬타고 오는 超人'이 '이 曠野에서 목노아 부르'는 낙관적인 미래를 그려보고 있는 것이다.

동방은 하늘도 다 낫나고
비 한방울 나리잔는 그따에도
오히려 꾀춘 밝아케 피지안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입업는 날이며

北쪽 '손도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깃히 꾀 맹아리가 움작어려
제비떼 까마케 나라고길 기다리나니
마춤내 저버리지 못할 約束이며!

한 바다 북판 용소슴치는 곧
바람결 따라 타고르는 꾀城에는
나뻐처럼 醉하는 回想의 무리돌아

12) 金澤東, 앞의 책, p. 217.

13) 金宗吉, 「陸史의 詩」, 「나라사랑」, 제16집, p. 76.

14) 金容稷, 「抵抗의 論理와 그 精神的 脈絡」, 「韓國現代詩研究」, 一志社, 1979, p. 37~78.

15) 위의 글

16) 위의 글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 「꽃」全文

「꽃」도 앞에서 이미 살펴본 「喬木」이나 「曠野」와 거의 같은 정신세계를 보여 준다. '비 한방울 나리잔는 그따에도/오히려 꽃춘 밝아케 피지 안는가'와 '北쪽 '쏟도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깊이 꽃 맹아리가 움작어려'는 모두 "생명의 존립을 거부하는 극한상황"¹⁷⁾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일어서는 '꽃'을 통하여 시인의 강한 정신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의 '제비떼'는 낙관적인 미래를 상징하는 동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미래를 가능하게 해 줄 상징적인 식물인 '꽃맹아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흥미롭다. 그 미래가 확대된 지점에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城'이 존재한다. 결국 우리는 이육사가 지녔던 낙관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마음이 얼마만큼의 정신적 깊이와 넓이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이 작품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喬木」에서 시인이 성취하고 있는 것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확고부동한 자기확인이다. 「喬木」이란 말 자체가 벌써 '超人'이란 말과 동일한 의미망에 놓여 있고 실제로 시인은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曠野」는 조국독립과 해방에 대한 염원을 노래한다. 그 염원은 초인의식에 바탕을 둔 낙관적 미래지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曠野」는 우리 겨레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고 신성불가침의 공간이며 실제로 이 작품은 그 점을 날날이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식민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 「꽃」이 보여주는 정신세계도 위의 두 작품과 같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낙관적인 미래를 상징하는 동물로 '제비떼'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상징적인 식물인 '꽃맹아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낙관적인 미래를 지향하고 있음은 이 작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Ⅲ. 結 論

지금까지 이육사 시에 나타난 의식과 그 의미를 저항의식과 민족의 현실, 고향의식과 떠도는 자의 삶, 초인의식과 미래지향 등 세 가지 경향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제 그 내용을 결론 삼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육사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 저항의 자세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 자세를 행동으로 옮겼던 시인이다. 그를 혁명가, 독립투사로 부르는 것은 이러한 점 때문이다.

저항의식과 민족의 현실을 드러내는 경향의 작품들을 살펴 보면 그 저항의식은 각각 다른 근거에서 형성·전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저항의식은 「黃昏」에서는 '골방의 커튼'을 걷는

17) 金興奎, 앞의 글, 앞의 책, p.107.

행위 이전의 상황에서,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에서는 한 개의 별을 염원의 대상으로 삼는 절실함에서, 「絶頂」에서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에 나타난 역설에서, 「蝙蝠」에서는 박쥐의 생태와 동일하게 진술되는 참담한 거래의 삶에서 각각 형성·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각각 다르게 표현된 형성·전개의 근거가 한마디로 해서 '민족의 현실'이란 말에 포괄될 수 있는 것들임은 물론이다.

이육사는 각종 국내외의 독립운동 관련 사건으로 17회 이상 피검, 투옥되었다. 이육사의 작품 활동이 그의 나이 27세 때인 1930년 1월 3일 朝鮮日報에 「말」이란 작품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면 1944년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활동기간은 14년이 된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그의 생애를 염두에 둔다면 고향의식에 바탕을 둔, 떠도는 자의 삶을 드러낸 작품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육사 시에 나타나는 고향의식들은 미세한 부분에서 구별되는 것들이다. 조국의식에 기울어진 경우(「路程記」)가 있는가 하면 고향의 피폐한 실상을 드러내거나(「草家」·「子夜曲」) 망향의식으로 나타나는 경우(「小公園」)도 있다. 또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고 도달한 높은 정신세계가 고향의식과 연결된 경우(「年譜」)를 만나기도 한다. 이와는 약간 다르게 자신(시인)의 처지가 부각되거나(「獨白」) 회망적인 미래를 염원하는 경우(「靑葡萄」)도 있다. 그리고 '떠도는 자의 삶'은 이러한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고향의식의 모든 경우에 바탕을 둔 삶이다.

이육사 시에 나타나 있는 초인의식은 「曠野」의 '白馬타고 오는 超人이 있어'에서 보듯이 '超人'을 기다리고 있는 의식이며 또한 이것은 우리 거래를 위해 큰 힘을 발휘하거나 큰 힘의 원천이 되는 것에 대한 의식이기도 하다.

「喬木」에서 시인이 성취하고 있는 것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확고부동한 자기확인이다. '喬木'이란 말 자체가 벌써 '超人'이란 말과 동일한 의미망에 놓여 있고 실제로 시인은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曠野」는 조국독립과 해방에 대한 염원을 노래한다. 그 염원은 초인의식에 바탕을 둔 낙관적 미래지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曠野'는 우리 거래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고 신성불가침의 공간이며 실제로 이 작품은 그 점을 낱알이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식민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

「꽃」이 보여주는 정신세계도 위의 두 작품과 같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낙관적인 미래를 상징하는 동물로 '제비떼'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상징적인 식물인 '꽃맹아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낙관적인 미래를 지향하고 있음은 이 작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Summary

The Consciousness in Lee Youk-sa's Poems and Its Meaning

Kim Byung-Taek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quire into the consciousness which the poems written by Lee Youk-sa reveal and its different meanings. Therefore we discuss the consciousness of resistance and the Korean people's reality, the consciousness of hometowns and the vagabond's life, the consciousness of the superman and the direction for the future in this paper to fulfill such an aim. The following summarizes what we discuss from three different viewpoints.

When we take a good look at Lee's works in which the consciousness of resistance is revealed, we can find the fact that the consciousness of resistance was formed and developed on different bases. In other words, the consciousness of resistance was based upon such circumstances as urgency, paradox, a miserable life and so on. In this case, the different bases of the consciousness of resistance can be said to have been the Korean people's reality at that time.

All of Lee's works which reveal the consciousness of the hometown don't show the same consciousness of the motherland and the homesickness in some works, other works show the impoverished conditions of hometowns through it, or, in particular when it is connected with the high spiritual realm, bring his wretched situation into relief with wishes for a hopeful future. Regardless of these different meanings of consciousness, a vagabond's life includes all different meanings of the consciousness of the hometown.

The consciousness of the superman looks forward to the superman to exert his great power or be the source of great power for the Korean people. There are firm self-identification and hope for the liber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motherland as an intellectual of that time in Lee's works have the common feature of heading for a hopeful future.